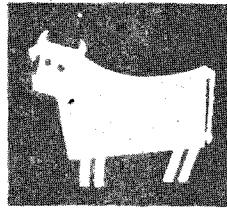


축산업계 동향



육류소비증가율 25.9%

- 작년 1인당 10.2kg꼴, 닭고기는 2.4kg -

지난해 국민 1인당 육류소비량은 10.2kg으로 전년대비 25.9%가 증가했으며, 총소비량은 37만7천8백13톤에 달해 전년대비 27.6%가 증가했다.

축산진흥회의 조사에 의하면 78년도 축산물소비실적은 국민 1인당 쇠고기 2.7kg, 돼지고기 5.1kg, 닭고기 2.4kg을 소비 돼지고기가 가장높은 소비증가율(30.8%)을 보였다. 계란은 1인당 1백14개를 소비 17.5%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75년도부터 78년도까지의 축산물 소비추세는 다음과 같다.

총	우 육 %	70,292	75,533	81,623	101,024
	증가율 %	36.5	7.5	8.1	23.8
소	돈 육 %	98,848	109,046	141,311	187,943
	증가율 %	8.0	10.3	29.6	33.0
비	제 육 %	55,594	60,886	73,052	88,846
	증가율 %	4.4	9.5	20.0	21.6
	제 란백반개	2,896	3,048	3,552	4,220
	증가율 %	5.1	5.2	16.5	18.8
	우 유 %	162,435	198,891	254,245	325,867
	증가율 %	28.0	22.1	27.8	28.2
	1인당GNP \$	532	698	864	1,242
	인구 천명	35,281	35,860	36,436	37,019

농수산부, 대두박수입 개방키로

- 국내생산 수요충당 못해 -

농수산부는 대두박수입을 개방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퓨리나코리아가 신청한 2만t중 1만1천t을 수입추천 해주기로 했다.

농수산부당국은 현재 동방유량등 국내대두박생산능력으로서는 년간수요량의 60~65%밖에 충당할 수 없기때문에 한국사료 협회로부터 부족분을 공동으로 구매, 수입하도록 추천해주고 있으나 앞으로 배합사료생산업자가 직수입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전체수급물량 범위안에서 수입을 추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퓨리나코

구분	年度	75	76	77	78
1	육 류 kg	6.4	6.8	8.1	10.2
	증가율 %	12.3	6.3	19.1	25.9
인	우 육 kg	2.0	2.1	2.2	2.7
	증가율 %	33.3	5.0	4.8	22.7
당	돈 육 kg	2.8	3.0	3.9	5.1
	증가율 %	7.7	7.1	30.0	30.8
비	제 육 kg	1.6	1.7	2.0	2.4
	증가율 %	6.7	6.3	17.6	20.0
	제 란 개	82	85	97	114
	증가율 %	3.8	3.7	14.2	17.5
	우 유 kg	4.6	5.5	7.1	8.8
	증가율 %	24.3	19.6	29.1	23.9
육 류 %		224,734	245,465	295,986	377,813
증가율 %		12.3	9.2	20.6	27.6

축산업계 동향

리아」가 자체공장의 대두박수요량 1만1천t에 대해서는 직수입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겠으나 나머지 9천t에 대해서는 타 사료공장에서 수입의뢰한 분이므로 수입추천을 유보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 대두박생산용 콩수입계획량은 36만t으로서 78%의 수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27만8천t의 대두박을 생산하게 된다.

축진, 작년말 가축통계 발표 - 78년말현재 닭 4천79만 3천마리 -

78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축사육수는 한우 1백62만4천마리, 육우 2만7천마리, 젖소 13만3천8백마리, 돼지 1백71만9천마리, 닭 4천79만3천마리로 나타났다.

축산진흥회가 발표한 가축통계에 의하면 이밖의 가축은 말이 5천7백마리, 산양 24만4천마리, 오리 56만마리, 칠면조 4만8백마리로 나타났다.

78년도 정부의 강력한 축산진흥시책에 따

라서 대부분의 가축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비육우는 작년한해동안 1만6백마리가 증가, 64.4%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닭도 34.8%나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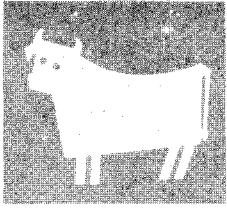
작년부터 갑자기 사육붐이 일어난 칠면조는 무려 4백3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쇠고기 수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휘몰아친 축산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한우는 작년 6월보다 오히려 1만마리 이상이 감소했고 닭은 6백90만마리, 돼지도 5천마리나 줄어든것으로 나타나 축산진흥시책의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축산업이 대부분 아직 농가부업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는데 한우의 경우 전체사육 마릿수의 85.2%, 전체사육농가의 94.9%가 1~2마리씩 기르고 있고 돼지는 전체사육수의 39.3%, 사육농가의 86.8%가 역시 1~2마리씩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축종별사육현황은 별표와 같다.

연도별 가축사육수(단위: 마리)

연도	한우	육우	유우	우우	돼지	닭	말	산양	오리	칠면조	(49년통계)
50	392,660			780	156,400	719,480	17,070	19,850		37,691	
60	1,010,235	656		866	1,397,139	12,030,411	20,162	155,492	196,831		1,819
											(69년통계)
70	1,270,823	3,023	22,827	1,121,413	23,476,863		17,683	99,351	199,458		1,741
77	1,492,063	16,454	109,243	1,481,889	30,224,309		6,847	216,331	543,361		7,617
78	16,24,301	27,054	135,803	1,719,364	40,753,249		5,696	244,274	559,919		40,867



酪協, 낙농진흥세미나 성료

- 광주, 부산, 홍성, 성환등

4개지역에서 -

한국낙농협회(회장: 전휴상)는 한국낙농의 경영 및 시설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낙농진흥 세미나를 5월 9일부터 17일까지 광주(9일), 부산(10일), 홍성(16일), 성환(17일) 등 4개 지역에서 개최하였다.

미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지부장: 박영인)와 낙협 각지역조합의 후원으로 개최된 본세 미나는 학계·관련분야 및 회원등 총 2천 4백여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루었다.

전휴상 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낙농인이 당면하고 있는 집유선동결조치, 원유생산 제비용의 앙등, 세제혜택의 마감, 분유 수입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나아갈바를 천명하고 낙농의 발전은 낙농인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회원의 협조와 단결을 촉구했다.

한편 미사료곡물협회 박영인지부장은 특별 강연을 통해 '한국낙농의 전망과 발전대책'에 관해 수요개발, 유통개선, 능률적인 생산업계의 조직화, 지원기관의 활용등으로 구분해 부문별 개선책과 산업전반적 정립 대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밖에 미국 메사츄세스 주립대교수인 Robert Light박사의 「젖소 및 육우사육시설의 합리적 설계」, 전남대 농대 나진수교수의 「젖소의 번식장해와 대사성질환」, 부산우유협동조합의 박무서 진료제장의 「젖소의 질병과 홀스타인의 특징」, 전국대 축산대 정길생박사의 「젖소의 번식대책」에 관한 강연을 가졌다.

국제 옥수수가격 상승추세

- 2개월사이 톤당 10\$ 올라 -

옥수수 국제가격이 올들어 고개를 들기 시작 최근에는 미국 시카코시장에서 톤당 1백 50달러로 치솟았다.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에 따르면 지난 76년 10월이래 t당 1백달러이하선을 유지해 왔던 시카고의 옥수수가격은 지난해 5월 t당 1백 1달러를 기록했으며, 그후 계속 내림세를 보여 한때는 84달러수준으로 내려갔다가 올들어 다시 계속 오름세를 보여 현재 1백 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옥수수 재고는 지난 수년간의 계속적인 수요증가에 힘입어 3년에 걸친 대풍작으로 4월 1일 현재 전년동기보다 14%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가격상승추세는 생산비에도



축산업계 동향

미달한다는 미국농민들의 아우성 때문에 미국과 같은 주산국에서는 가격상승조작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펴고있기 때문에 그결과 올해는 식부면적이 2백만ha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소련은 곡창지대가 봄철늦게까지 추웠던 편제로 맥류파종에 큰 차질을 빚게되어 올해는 수입수요가 1천 2백 60만t에 달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어 옥수수시세의 상향세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今後의 국제 옥수수가격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수요경향과 植付 및 作況에 따라 많은 변동이 예상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일것이라고 미국사료곡물협회는 전망하고 있다.

어분생산 4억 5천만원지원 검토

-농수산부, 후취담보문제등

농협과 협의 -

농수산부는 고려원양어업(주)에 어분생산을 위해 원료어 수매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다.

농수산부에 의하면 선망어선이 어획한 정어리를 구입, 이를 원료로 어분을 생산, 배합사료공장에 공급키위해 4억 5천 6백만원을 융자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산청은 이를위해 남해안에 출어한 개척호가 하루평균 정어리 6백톤을 매입하여 1백톤의 어분을 생산, 3개월간 총 4만 5천톤의 원료어를 처리가공 7천 5백톤의

어분을 생산할 계획아래 소요자금 13억 6천 8백만원의 50%인 6억 8천 4백만원(2회전)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등에서 융자해줄 것을 농수산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수산부당국은 고려원양이 이미 배합사료업체로부터 어분선도금조로 2억 1천 5백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4억 5천 6백만원을 융자해줄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후취담보가능성 여부를 놓고 농협중앙회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계사료가격 재조정 될듯

- 농수산부, 종계장 및 관계기관

회의 개최 -

4월 3일 사료값 인상때 유독 하향조정된 종계사료 가격이 재조정 될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부는 지난 23일과 24일 사료업계 종계장 대표 관계기관 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종계사료 가격을 상향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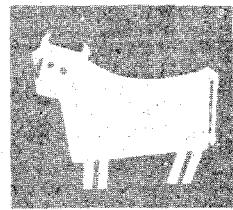
사료업계는 지난 사료값 인상후 종계사료 제조가 급격히 감소하여 거의 생산이 중단되는 사태로 까지 발전하려 하고 있다.

수입탈지분유 6월부터 공급

- 농수산부, 성수기

원료수요증가에 대비 -

농수산부는 유제품성수기에 대비하여 네덜



란드서 수입한 탈지분유를 6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축진에서 올해 탈지분유수입계획 2천t중 1천t은 이미 지난 4월 구매계약을 체결 7백50t은 했고 나머지 2백50t도 곧 도착될 예정인데 6월에 접어들면 원유가 달릴 것으로 예상, 아이스크림을 비롯 발효유·과자·빵등을 생산하는 업체에 t당 2백55원에 배정 공급할 계획이다.

축진, 2/4분기

축산진흥기금배정

- 올해 61억 6천여만원 지원 -

축산진흥회는 지난 5월 2일 축산진흥 기금의 ¼분기 지원액을 24억 2천만원으로 확정, 사업별로 배정했다.

축진은 올해 축산진흥기금융자계획 61억 6천 4백20만원중 ¼분기중에는 각종 사업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24억2천만원을 배정 농협에 영달하고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양축농가에 통지했다.

¼분기 사업별 자금배정액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가공식품 행정창구 일원화 검토

- 원료수급조정, 가격안정도모, 식품산업 육성책도 강구 -

농수산부는 식량수급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하는 식품산업의 행정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가공식품산업 행정창구의 일원화문제는 농업정책은 곧 넓은 의미의 식량정책이므로 이제는 양곡정책의 차원을 넘어 채소 수산물등 1차생산물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 가공까지 포괄하는 농수산정책적인 문제이다

농수산부당국은 국민의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식생활소비패턴이 크게 달라져가고 있음을 감안, 가공식품원료의 수급조절 가격의 안정화도모는 물론 넓은 의미의 국민식량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식품가공산업에 대한 행정지도체계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간계획			2/4분기 자금배정		
	물	간	계	액	물	간
종계부화장육성	10개소		300		10개소	100
번식양돈장육성	80개소		1,000		25개소	312.5
육우종모우지원	45두		22.5		45두	22.5
육성비육사료지원	34,171두		3,133.7		4,250두	340
육우입식	3,000두		840		3,000두	840
제주종합개발			73	초예기 10대		10
미호천개발	관정 100개소 초예기 30대		45	초예기 100개소·30대		45
대단위목장지원	13개소		750		13개소	750

축산업계 동향

농수산부, 가격하락시기에 계란군납 집중토록 - 산란노계군납도 재개될듯 -

농수산부는 국방부에 계란의 생산 및 수요는 계절에 따라 진폭이 커 월별가격 변동이 심하므로 계란가격안정유지를 위해 ①계란가격하락시기(1, 2, 6, 7, 11, 12월)에 계란이 집중 조달 되도록 조절해줄 것과 ②산란노계의 군납을 실시할 것을 다시 촉구한 결과 국방부로 부터(79.5.10) 이에 대해 농수산부의 요청대로 실천하도록 군부대에 조치했음을 회신해 오므로서 계란가격안정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가금처리장의 이상란 발생율 7.2% - 일본, 죽시둠증 29.6%로 가장높아-

일본 농림성 가축위생과 발표에 의하면 1977년도 578개소의 도계장에서 2,262,633수의 닭을 수의사가 육안검사한 결과 이상계의 발생수는 161,901수 발생으로 7.2%에 달하고 있다.

과거 1972년도의 5.3% 73년도의 5.8% 74년도 6.5% 75년도 9.2% 76년도 5.2%로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C. R. D	16.3%	복 막 염	3.3%
백 혈 병	4.6%	지 방 간	12.7%
M D	5.5%	대 장 균 증	3.0%
죽 시 디 움	26.9%	I. C	2.1%

F	P	0.2%	폐 염	0.2%
각 약 증	1.9%	기 판 지 염	2.1%	
骨 脆 弱	3.2%	간 염	0.7%	
腱 斷 製	0.1%	난 소 이 상	0.3%	
위 장 염	0.9%	내부기생충	0.4%	
관 절 염	1.8%	소낭가다루	0.07%	
난 추 락	0.1%	종 양	0.06%	
영 양 불 량	1.8%	부도우구균증	1.7%	
회 충 증	0.2%	기 타	10.7%	
심 장 염	0.3%			

축산인테니스대회 성황리 마쳐 - 20개단체, 100여명참석 -

전국 축산인테니스회(회장: 윤재인)가 주최하는 제10차 전국 축산인 테니스대회가 5월 20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테니스장에서 20개단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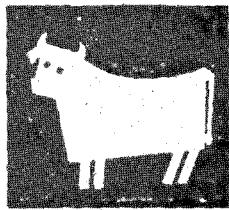
이날 대회는 봉황, 금, 은배로 나누어 개최되었으며 이날경기는 기관장 및 50세이상이 참가한 봉황배 우승에 장동환(양축가:충남홍성), 윤익석(건대 축대)조가, 역대준우승 이상조 및 신청자가 참가한 금배는 전국대학교의 윤화중·이정무조가, 기타 애호자가 겨룬 은배는 양평여주축협의 이규화·백형욱 조에 돌아갔다.

한편 준우승조는 다음과 같다.

봉황배준우승: 문해식·김동성

금 배 " : 김성철·신영수(축진)

은 배 " : 문용구·박현기(서울우유)



한국축산학회 학술발표회 및 심포지움 개최 - 4월 28일, 경북대학교에서 -

한국축산학회(회장: 한인규)에서는 지난 4월 28일 경북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제33회 학술발표회 및 심포지움을 가졌다.

약 30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룬 이날 회의에서 송해균교수(서울농대)는 주제 발표에서 대학축산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학술발표회는 영양·사료분과, 육종·번식분과, 가공분과, 초지·경영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특강과 다수의 연구논문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참가자 전원은 경북대학교 총장이 베푸는 리셉션에 참가하였다.

대한수의학회 춘계심포지움 개최 - 5월 5일, 대전카톨릭문화회관에서 -

대한수의학회(회장 정창국) '79년도 춘계 심포지움이 지난 5월 5일(토) 오전 10시부터 대전시 대전카톨릭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대한수의학회가 주최하고 중앙 가축전염병 연구소에서 협찬한 이날 심포지움은 정창국 회장의 인사에 이어 이방환박사(전남대 농대)의 '국내 사육 홀시타인종 유우의 혈액치에서 본 문제점에 관한 고찰' 등 2편의 논문발표로 오후 5시까지 속개되었다.

동수의학회는 매년 춘·추계 정기 심포지움을 갖고 있다.

한국가축번식연구회 춘계학술발표회개최 - 5월 19일, 영남대학교에서 -

한국가축번식연구회(회장: 이재근)에서는 지난 5월 19일(토) 영남대학교 농축산대학에서 임시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재근(고대농대) 회장의 인사로 부터 시작된 이날회의는 전국대학교 축산대학 정길생 박사의 『젖소의 번식장해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 외 1편의 특별강연과 영남대 농축대 임경순·김재윤·이상수교수의 『원정액과 회색정액의 수태율 및 부화율에 미치는 영향』 등 다수의 학술발표가 있었다.

양돈 양계 사양기술 강좌개최 - 춘천축협주최, 중앙축산사료(주)후원 -

춘천축협동조합(조합장: 김영석)은 5월 26일 춘천예식장 2층(춘천시 낙원동 소재)에서 양계, 양돈 사양기술 강좌를 개최하였다.

춘천지역의 양계·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과학적인 사양관리 보급을 위해 열린 이번 강좌는 민덕기 본회 부회장의 '삿갓육추방법' 강원대학 이영철교수의 '닭의 스트레스 요인과 그 대책' 국립종축장 박태진과장의 '돼지의 능력향상 기술' 등이 발표되었다.

이번 사양기술 강좌는 중앙축산사료주식회사(대표: 유창열)가 후원했다.

축산업계 동향

給餌車 전시회 개최

양계산업의 기계화가 절실한 때에 국내 최초로 자동 급이차가 제작되어 5월 14일 일반양 축가에 공개 되었다.

일본으로부터 부품 및 기술을 제공받아 한국원종농장 (대표 강홍열 Tel 389-4448)에서 제작 보급하는 자동 급이기는 연료가 필요없이 에너지 위기 시대에 적합한 급이차라 하겠다.

이날 선보인 급이차는 외제와 차이가 없는 성능을 과시하였다.



업계 단신

◎ 김영환 (신성부화장대표 : 본지 편집위원장) : 영국의 육용계 마아살 한국 총대리점을 개설함에 수원소재 부화장에 전화를 증설 (서울) 48-0257, (수원) 1331-2-5993.

◎ 제일제당 (대표 : 경주현) : 5월 12일부터 인천배합사료공장 (인천시 신흥동 3 가)에서 제일제당배합사료 出市 기념식을 갖고 전국적인 제품출하에 들어갔다.

◎ 세계가금학회 : 제 2 차 가금영양심포지움을 베델란드에서 오는 10월 8 일부터 11일 사이에 개최 예정.

◎ 대한제당〈주〉(대표 : 민준기) :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6의35의 6천평 부지에 대단위 사료공장을 준공,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최신식 과학시설을 설비한 본 공장에서는 국내최초로 페렛사료, 후레이크사료 등 고호율사료 생산공급을 할 수 있으며 또 벌크수송방법을 채택, 사료공업 과학화에 앞장섰다.

전화번호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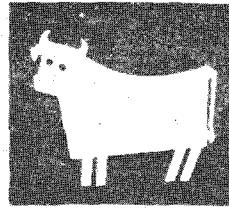
◎ 한성사료〈주〉(대표 : 도성기) : (부산) 83-8671~4번 까지로 변경.

◎ 한국화이자〈주〉(대표 : 김중배) : 교환 (763) 7681~8, 영업부직통 (763) 7663, 농축부직통 (763) 7689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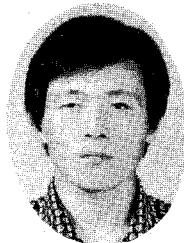
◎ 지산가축약품상사 : 전화증설 광주 (4) 8242

◎ 한일사료〈주〉(대표 : 차두홍) : 5월 27일부터 전화번호변경 (사장실) 435-1122, (총무부) 435-1123~4, (영업부) 435-1125~7, (구매부) 435-1128

◎ 축산기구사(대표 : 고규락) : ⑬국 전화



- 가 (372) 2461로 국번변경.
 ◇ 다음 전화번호 국번이 7월 1일부로 변경.
 44국→444국
 45국→445국
 46국→446국
 47국→447국



김 용 석

01 전

- ◎ 삼일농장(서울사무소) : 중구 초동 1가 61-7로 서울사무소이전.
 ☎ (작통) 261-0387, 266-7333
 (교환) 266-1526~6, 267-1556
 269-5193, 1797
 ◎ 한국계우회(회장 : 김종현) : 서울시 · 동 대문구 청량리 1동 235-4, 미주상가아파트 A동 38-1로 사무실 이전.
 ◎ 삼동개발(주)(대표 : 이봉기) : 서울 · 강남구 서초동 232-2(은정빌딩 501호)로 이전. 전화번호는 (252) 3171~2번.

업계 인사

- ◎ 지산종계부회장(대표 : 송두진) : 종계장 자체검사를 위해 김태기씨를 특채.
 ◎ 이글케미칼 : 경북주재원에 김용석(영남 대축산과졸)씨를 특채.

- ◎ 삼진가축약품 : 김호용씨(전 연암축산 전문대학)를 영업부과장으로 기용.
 ◎ 흥성사료(주)(대표 : 정태원) : 김기송씨를 생산관리과에 특채.
 ◎ 다나가축 : 이병남씨(건대사료과졸)를 영업부주임으로 특채.
 ◎ 유한양행(주) : 농축부 심오섭과장이 판매부 특판과로 전보.
 ◎ 한국화이자(주)(대표 : 김중배) : 정국조(영남대졸, 前 중외제약)씨와 허근(강원대졸)씨를 농축부에 특채.

대한양계협회 발행

종계사양일지

발매중

1권 350 원